

## 다림티센, 기능성 화장품 FDA 승인

다림티센의 화장품이 국내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Drug) 승인을 받았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다림티센은 기능성 화장품 <Tissen NF-10>과 <Tissen ICM-10>이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으로 2월11일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2월26일 발표했다.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동시에 미국 FDA 일반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Tissen NF-10과 Tissen ICM-10은 피부면역 반응을 제거한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인 고순도 의료용 콜라겐을 이온화해 만든 기능성 화장품으로 에센스와 마스크팩 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국내 최초로 고순도 의료용 콜라겐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 국내 식약청에서도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았으며 모공축소, 필링 후 표피재생, 잔주름 예방 및 개선, 여드름 흉터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림티센은 미국의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인 BIO-Flora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200만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라스베이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노화방지의학회에 초청된 유일한 국내기업으로서 출품 전시했으며 LA 버리힐즈 노화방지클리닉의 수잔 베넷 박사와 1차로 20만달러의 판매약정을 체결했고 홍콩과도 수출협상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수출액은 54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FDA승인으로 연평균 250억달러의 미국 화장품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다림티센은 고순도 의료용 콜라겐과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해 인공장기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최첨단 생명공학기업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ISO TC150/194 (외과용 이식재/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미국표준재료협회(ASTM) 생물학적 의료기기 SC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2/26>